진중권의 세상보기

연탄재 발로 차지 마라

"이 나라에는 이라크 전쟁에 찬성하는 애국자와 이라크 전쟁에 반대하는 애국자가 있다."

언젠가 이준석씨에게 들은 얘기다. 그는 지금 새누리당 후보의 당선을 위해 열심히 뛰고 있다. 미국에서 유학하던 시절, 그는 오바마 대통령의 연설에서 이 대목을 듣고 크게 감동했다고 한다. 그의 감동은 또한 나의 것이기도 하다.

미합중국의 국민은 이라크 전쟁에 찬성하든, 그 전쟁에 반대하든 '애국자'가 된다. 하지만 대한민국 국민은 선거 때마다 '빨갱이' 아니면 '매국노'가 되어야 한다.

인구 절반의 빨갱이에, 나머지 절반은 매국노라면, 도대체 이 나라는 누가 지킨단 말인가? 왜 우리는 서로 상대로부터 국민 될 자격을 박탈하려 드는 걸까?

나는 '국민 후보'인 문재인 후보를 지지한다. 물론 문재인-안철수-심상정이 함께 하는 정부만이 이 나라를 미래로 이끌 수 있으며, 박근혜-이회창-이인제가 함께 하는 정권은 이 나라를 과거로 퇴행시킬 것이라고 굳게 믿는다. 하지만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는 이들은 당연히 나와는 정반대로 생각할 것이다.

물론 나는 그들의 생각이 잘못됐다고 본다. 하지만 적어도 나라를 사랑하고 걱정하는 마음 만큼은 그들도 나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게다. 아니, 그들의 마음이 어쩌면 나의 것보다 더 뜨거울지도 모른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제부터 "이 나라에는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는 애국자들과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는 애국자들이 존재한다."고 말하자.

언제나 보수당만을 지지하는 어르신들의 생각은 내게 답답하게만 느껴진다. 하지만 그 분들은 전쟁을 겪었음을 기억해야 한다. 직접 경험하지도 않은 광주의 상처를 내가 평생 안고 살아가듯이, 그 분들 역시 직접 경험한 전쟁의 외상을 평생 안고 살아오셨고, 다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가실 게다. 그 상처를 이해해야 한다.

박근혜 후보의 유세장에 모인 어르신들은 저마다 손에 태극기를 들고 계셨다. 젊은 세대는 그 분들이 우리의 미래를 흘러간 과거에 묶어 놓는다고 원망하고, 심지어 그들의 고리타분함을 비웃기도 한다. 하지만 높은 투표참여율로 드러나는 그 분들의 애국적 열정만은 존엄한 것이어서 우리의 존경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

'선거 날 박근혜 후보를 찍으려는 부모님을 효도관광 보내 드리겠다'는 말은 행여 농담으로라도 하지 말자.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든,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든, 나라의 장래를 결정하는 투표에는 모든 애국자들이 참여해야 한다. 설사 지지하는 후보가 나와 다르더라도, 집안의 나이 드신 애국자들과 함께 투표장에 나가자.

나를 부끄럽게 하는 분들이 또 있다. 인도에서, 멕시코에서, 유럽에서 차를 타고, 기차를 타고, 심지어 비행기를 타고 10시간, 20시간, 40시간을 걸려 투표장으로 나간 재외국민들. 그 먼 시간을 들여 투표장으로 향하던 그 분들의 가슴 속에 담겨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물론 나라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리라.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은 같으나 '나라를 사랑하는 방식'이 다른 사람들이 '나라를 사랑하는 열정'의 온도로 서로 경쟁하는 마당. 우리의 선거도 이제 그런 축제의 장이 되어야 한다.

나라를 사랑하는 방식은 서로 비판하더라도,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만은 서로 의심하지 말자. 그리고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승자에는 영광을, 패자에게는 명예를 주자.

92%에 달한다는 60대 이상의 투표 의향. 그걸 보고 푸념하는가? 안도현 시인의 말대로, 어차피 인생은 연탄 한 장이 되는 것. 그 분들은 전쟁과 산업화의 과정에 제 한 몸 다 태워 기꺼이 연탄재가 되셨다. 재가 되어서도 아직 저렇게 뜨겁다.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냐."

〈동양대 교양학부 교수〉

사 설

학교폭력 기재 여부 학교 자율에 맡겨라

광주시교육청과 전남도교육청이 학교폭력 가해 사실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도록 요구하는 교육과학기술부의 방침에 맞서고 있는데도 일선 학교들이 이에 동조하지 않고 있다. 이들 학교는 교과부의 강도 높은 징계가 예고돼 있는 마당에 교육청의 방침을 따를 수 없다는 것이다.

일선 학교에 따르면 교과부의 학교폭력 기록 작성 및 관리 지침에 따라 대부분 학교폭력 가해 사실을 학생부에 기재했거나 기록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는 학교폭력 기재를 거부토록 한 교육청의 방침과는 정면 배치된다.

시교육청은 애초 학교폭력을 기재하지 않도록 했다가 고3에 한해 이를 기록하기로 번복했다. 그러나 전교조 등이 반발하자 결국 고3에 대해서도 기재를 철회토록 했다. 도교육청도 당초 방침과는 달리 기재를 하지 않는 방향으로 선회했다. 가해 학생이 품행을 뚜렷하게 개선하면 학생부에 기록하지 않도록 하는 등 구제절차를 두면서도 큰 틀에선 교과부의 방침을 거부한 것이다.

그러나 교과부가 최근 학교폭력 기재를 촉구하는 공문을 학교에 보내 기재 거부에 대한 고강도 징계방침을 밝히자 일선 학교에서 기재 쪽으로 입장이 바뀌었다. 학교 측은 교육청이 학교를 보호해주지 못하는데 법을 내세워 기재를 요구하는 교과부를 무시할 수 없다는 얘기다.

또, 현재 고3의 학교폭력 사실을 기재한 학교, 하지 않은 학교가 있는 상황에서 교과부 방침에 따른 학교의 재학생만 입시전형에서 손해를 보는 등 형평성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교육청이 보호대책 없이 오락가락 행정을 펴는 건 일선 학교에 혼선과 학생들에게 피해만 주게 되는 것이다. 학교폭력 기재가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한다는 사실에 공감하지만 학교의 입장도 이해해야 한다. 차라리 학교폭력 기재 여부를 학교 자율에 맡기는 게 어떤가. 그게 더 합리적일 수 있다.

CCTV 사생활 침해 역기능 고려해야

최근 잇따른 범죄로 CCTV 설치가 크게 늘면서 사생활 침해 등 부작용이 새로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CCTV의 무분별한 설치가 '감시 사회' 풍토를 조성하는, 이른바 역기능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광주시에 따르면 12일 현재 광주지역에 설치된 공공 CCTV는 방범용과 단속용 등 모두 1430대에 이르며, 내년에는 약 700여대가 추가 설치될 예정이라고 한다. 여기에 민간에서 설치한 CCTV까지 포함하면 광주에는 9만여대의 CCTV가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시민 185명 당 1대 꼴로 광주시민 대다수가 CCTV의 감시 대상이 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CCTV 설치가 급증하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은 강력범죄가 늘어나고 있는 탓이다. 실제로, 강력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정부나 지자체는 범죄 예방을 위해 CCTV를 앞다퉈 설치하고 있다. 때문에, 대도시 주민들은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탈 때부터 슈퍼마켓에 들어갈 때, 골목길을 걸어갈 때, 버스를 기다릴 때 등 하루 30번 이상 CCTV 화면에 잡힌다.

문제는 과도한 CCTV 설치가 '감시' 풍토를 조성할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감시의 대상이 여성과 어린이 등 사회적 약자가 대부분이라는 점에서 심각성이 크다.

CCTV가 지켜보고 있는 곳이 여성이나 아르바이트생들이 상주하는 공간이어서 사생활 보호에 취약한 것이다. 일하는 공간이 곧 '사생활 공간'이 되는 이들로선 당연히 이를 감시로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범죄 예방 차원에서 공공장소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은 당연하다. 각종 범죄 방지는 물론 범죄자 체포에도 CCTV의 역할이 크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권이나 사생활 침해 문제를 야기해선 안된다. 정부는 무분별한 설치 규제와 관리 강화 등 법적·제도적 방안을 속히 강구해야 한다.

종교칼럼

무릎 꿇은 나무

강상원

로키산맥의 해발 3000미터 높이에는 수목한계선 지대가 있다. 이곳 나무들은 매서운 바람 때문에 곧게 자라지 못하고 무릎을 꿇은 모습을 하고 있다고 한다.

이 나무들은 열악한 조건이지만 생존을 위해 무서운 인내를 발휘한다.

그런데 세계적으로 가장 공명이 잘되는 명품 바이올린은 바로 이 무릎을 꿇고 있는 나무로 만든다고 한다. 모진 추위를 견디며 자란 나무의 결이 아름다운 소리를 내기 때문이다. 고난을 견딘 나무를 통해 고난을 견딜 수 있는 소리를 담은 악기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무릎 꿇은 나무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이야기 중의 하나다. 인생을 살아갈 때 잊지 말아야 할 교훈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가장 아름다운 소리는 가장 어려운 환경을 이겨낸 나무에서 나오는 것처럼 아름다운 영혼으로 아름다운 인생을 만들어가는 사람은 무릎 꿇은 나무처럼 겸손하게 살아가는 사람이다.

겸손은 이 시대가 잃어버린 소중한 인격의 덕목이다.

소위 이 시대는 자기PR(publicrelations·홍보) 시대라고 한다. 갈수록 치열해지는 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스펙을 쌓고 능력을 자랑해야 한다. 과정 같은 것은 중요하지 않고 오직 결과만 좋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끊임없이 누군가를 밟고 서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는 위화감속에서 겸손은 더 이상 자랑이 되지 못한다. 세상은 성공한 사람의 성공담만을 인정한다.

그러나 겸손은 자신의 부족한 점을 알고 다른 사람 앞에서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겸손은 진실해야만 할 수 있다.

1992년 6월 18일. 종교계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템플턴상 수상자로 선정된 고(故) 한경직 목사는 독일 베를린의 수상식장에서 장중하게 입을 열었다.

"나는 신사참배를 한 죄인입니다. 이 죄인을 하나님이 사랑하고 복을 주셔서 한국 교회를 위해 일하도록 이 상을 주셨습니다"라고. 귀국 후 수상 축하 연회에서도 그의 참회의 고백은 계속 되었다.

여러 저명 인사들의 축하 연설이 있은 뒤, 그는 수백 명의 축하객들 앞에서 자신이 한평생 지녀온 영혼의 깊은 죄악을 털어놓으며 머리를 떨구었다.

수많은 동료 목사와 신자들이 일제에 맞서 투옥되고 순교할 때, 자신은 그들과 함께 십자가 신앙의 자리에 있지 못하고 일본 신사(神社)에 머리를 숙였노라고 고백했다.

가장 큰 영광의 자리에서 가장 수치스러운 고백을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겸손하지 않고는 어렵다. 그는 이 고백을 한 후 겸손과 청렴의 삶을 살다 생을 마감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은 신앙인의 존경을 받고 삶의 이정표가 되어주고 있다.

겸손은 진실해야 할 수 있고 정직해야 할 수 있다. 또한 겸손은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인정할 때 가능하다. 그러므로 겸손은 성숙한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 개인 한 사람 한 사람뿐 만 아니라 지도자가 반드시 지녀야 할 가장 소중한 덕목이다.

성경에는 겸손하면 영광이 따른다는 말씀이 있다. 나는 오늘도 겸손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나는 내가 너무 부족한 사람임을 알기에 오늘도 무릎 꿇은 나무처럼 무릎 꿇고 기도한다. 겸손함을 갖춘 성숙한 인격을 지닌 아름다운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새밝교회 담임목사〉

기 고

부부관계 건강해지려면

김현아

"죽고만 싶어요. 이제는 그 길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눈물… 주루룩…. 배우자의 내면으로부터 나오는 따뜻한 정서적 지지를 호소하며 목말라 하다 지쳐버린, 이제는 노년으로 접어든 이 시대 일부 한국 여인들의 절절한 되뇜을 듣는다.

최근 들어 나이 지긋한 어르신들이 자식, 특히 딸들의 손을 붙잡고 상담실을 찾는 케이스가 부쩍 많아졌다. 이미 성인이 된 자녀일지라도 부모님의 역기능적인 부부의 구조에서 그들 또한 자유로울 수 없음이 상담실을 찾게 되는 이유라 할 수 있다.

배려받아온 어르신들 또한, 이 정도의 마음이 되어서야 겨우, 그것도, 자녀의 손에 이끌려 상담실을 찾는 게 현실이다. 대부분의 부부 상담의 장에서 발견되는 가장 큰 걸림돌은 부부 상호간의 의사소통양식의 불편함에서 시작된다.

부부 상호간의 의사소통양식이란 가정이라는 구조 안에서 이루어지는, 언어적 의사소통양식과 비언어적 의사소통양식 모두를 포함하는 것으로 이에 사용되는 모든 정형화되지않은 암시와 상징(따뜻한 눈빛, 배려하는 몸짓 등)을 포함하는 것이다.

이렇듯 부부간의 건강한 의사소통양식 구조에는 몇 가지 유형이 있다. 첫째, 회유형이 있는데 배우자의 말과 가치는 모두 적극적으로 인정하지만, 배우자에 대한 존중만 있고 정작 자신은 없는, 약간은 비굴한 형태의 소통양식 즉 무조건 배우자의 의견과 자신을 일치시키며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지 못하는 양식이다. 두 번째는 비난형으로 모든 의사결정의 주도권은 자신만이 가질 수 있고 자신만이 옳으며 배우자는 무조건 잘못되어있다는 양식으로 오직 나밖에 없는 유형이다.

세 번째 유형은 초이성형으로 '인간이란 무릇…' 등 당위성에 근거해 이야기를 펼치는 형으로 여기에는 자신도, 배우자에 대한 존중도 없는 지극히 이상화된 현실에 대한 동경만이 느껴지는 양식이다.

네 번째는 산만형으로 도무지 이야기의 주제가 없고 혼돈스러우며, 자신도 배우자도 상황도 내용도 없는 도통 무관심형에 해당하는 양식이다. 마지막으로 가장 이상적인 의사소통양식인 일치형이 있다. 이는 가치관 자체가 개방적이며 자신과 배우자를 모두 존중하고 정확한 상황인식을 거쳐 알찬 내용을 도출해 내는 건강한 양식에 해당한다.

위에 언급한 일치형의 건강한 의사소통양식이 일상화된 가정이라면 상처가 되는 말로 배우자에게 트라우마(마음의 상처)의 무의식을 만들지는 않을 것이다. 짚어보아야 할 문제는, 배우자에게 상처를 주는 의사소통의 양식을 취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마음 저변에 낮은 자존감과 외로움, 불안으로 늘 자신은 실패자라는 패배감을 갖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자신을 존중하는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뿐 아니라 상대방에게도 정서적 상처를 줄 확률이 아주 높다는 것이 많은 연구에서 확인되고 있다.

이와 같이 효율적인 의사소통양식과 더불어 건강한 자존감의 회복을 기저로 타인에게 나의 마음을 전달하는 효율적인 방법은 일단 마음의 불편함을 가져오는 그 상황을 차분히 설명하고, 그 상황에서 유발되는 자신의 마음을 펼쳐놓고, 후에 자신이 하고 싶은 내용을 상대에게 전달하는 것이다.

'관계'가 망가지는 가장 큰 원인은 '내 감정 억누르기', '그냥 참기' 인 것이다. 그 세월이 깊어지면 상대방에게서 점점 멀어지고, 기대가 없어지기 시작하며 감정을 공유하려하지 않고 굳이 소통하고 싶어하지 않다가 마침내는 상대방 존재의 필요성에 의미를 잃게 되는 것이다. 불편한 마음을 단지 억누르고 꾹 참기보다는 건강하게 풀어놓아야 하는 것이다.

이렇듯 건강한 자존감의 회복과 효과적인 의사소통양식은 서로 깊은 관련이 있다. 자아를 바라보는 마음에 걸림돌이 없어야 건강한 의사소통이 가능한 것이다. 건강하고 정직한 의사소통 양식은 건강한 자존감 회복으로 발전할 수 있으며, 그 유형 또한 건강하게 변화될 수 있다. 진정 '건강한 자존감'에 대해 생각해 볼 일이다.

〈광주대 겸임교수·보건학 박사〉

산업현장 갈수록 사라지는 숙련공 양성 급하다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다고 아우성이지만 중소기업들은 일할 사람들이 없다고 난리다. 그 일자리는 대부분 외국인 근로자들이 메우고 있는 실정인데 그나마 쓸만한 중소기업들조차 인건비를 감당하지 못해 지금 중국이나 기타 인건비가 싼 곳으로 자꾸 빠져나가고 있어서 큰 걱정이라 한다.

이렇게 경제의 모세혈관 같은 중소기업이 사라지는 와중에 또 다른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그것은 1960~70년대 한강의 기적으로 불리는 한국 경제의 눈부신 성장 신화, 그 뒤에서 수출 역군으로 맹활약한 주역인 이 숙련공들이 사라지고 있다는 점이다.

요즘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산업현장에서 젊고 솜씨 좋은 숙련공을 찾아보기가 힘들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대형 기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수많은 조립 부품들이 들어가야 한다. 그 조립부품은 전부 다 기계로만 만드는 게 아니라 아주 정밀하고 미세하게 만드는 숙련공들의 핵심 손 기술을 필요로 하는 게 많다. 숙련공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 숱한 세월 속에 자기 고뇌와, 번뇌와 노력과 땀의 결실이 어우러져서 탄생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 기술을 가진 숙련공은 지금 나이가 50~60대를 바라보고 있으며 이들이 퇴직하고 나면 이들을 이을 사람이 없는 게 문제다.

그 이유는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일을 배워 숙련공이 될 때까지 해야 하는데 요즘 젊은이들은 소위 이런 '기름밥' 먹는 일을 안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조금 하다가 힘들다며 그만두고, 월급 적다고 떠나고 하다 보니 기술을 전수해 주고 싶어도 후계자가 없는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숙련공은 나이 들어 퇴직하고, 다시 들어온 젊은이를 처음부터 가르치고 하는 것 자체가 힘들다.

전수받을 젊은이가 없어 숙련공들이 쌓아온 장인 기술은 사라지는데, 베이비붐세대인 50대 숙련공들의 은퇴가 본격 시작되면서 숙련공 부족현상은 더욱 심해질 것이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업과 인력담당자간에 대책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유지영·목포시 수강동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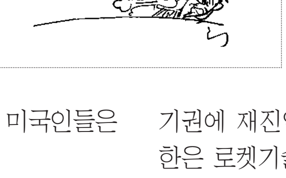
전화 062-2200-628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

無等鼓

스푸트니크 쇼크



1957년 10월 4일 오후 7시 28분 34초. 소련이 바이코누르 우주기지에서 세계 최초의 인공위성인 '스푸트니크 1호'를 발사하자 미국인들이 충격에 빠졌다.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미국인들은 장거리 미사일과 같은 무기체계와 과학기술 전반에서 자신들이 앞서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사실 미국은 1955년부터 인공위성 발사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미국은 해군의 '뱅가드 프로젝트'를 포함해 육군과 공군에서도 인공위성 발사 프로젝트를 추진했으나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엉거주춤하는 바람에 소련에서 선수를 빼기고 말았다. 핵탄두를 장착한 미사일이 자신들의 나라로 날아올수 있다는 공포에 미국인들은 거의 패닉상태에 놓였다.

이른바 '스푸트니크 쇼크'가 생기게 된 계기다. 스푸트니크의 영향으로 미국은 교육·군사·과학기술 부문의 개혁 필요성을 인식하게 됐다. 그 결과 1958년 미국항공우주국(NASA)이 설립됐고, 주노 1호라는 로켓을 쏘아 올렸다.

하지만 한번 빼앗긴 우주전쟁의 주도권은 쉽지 되찾지 못했다. 1961년 소련이 유리 가가린을 태운 유인우주선을 띄우는데 성공할때도 지켜보기만 하다 1969년 아폴로 11호로 달착륙에 성공하면서 주도권을 가져올 수 있었다.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은하 3호' 발사에 성공했다. 자체 기술로 개발한 3단 로켓이 무난하게 분리됐고, 궤도 진입에도 성공했다. 이로써 북한은 미국 본토까지 타격할 수 있는 1만㎞ 이상의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사거리를 확보했다.

인공위성과 미사일 기술은 종이 한장 차이다. 로켓이 대기권을 통과한 후 궤도에 진입하면 인공위성이 되고, 대기권에 재진입하면 미사일이 된다. 북한은 로켓기술에서 우리보다 최소한 6년 이상은 앞선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3번이나 나로호의 실패를 지켜볼 수밖에 없는 우리의 입장에서 북한의 은하 3호는 한국판 스푸트니크 쇼크로 다가온다.

/장필수 사회부 차장 bungy@kwangju.co.kr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논설주간 申港樂 편집국장 曺庚完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문화생활부	2200-661
편 집 부	2200-649	여론매체부	2200-621
정 경 부	2200-612	체 육 팀	2200-697
〈대표 FAX	222-4918〉	사 진 부	2200-693
사 회 부	2200-616	조 사 부	2200-571
〈대표 FAX	222-4267〉	전 산 팀	2200-685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홍보국	2200-541
〈F A X	222-8005〉	〈F A X	222-0195〉
광고마케팅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 A X	227-9500〉	〈F A X	227-9500〉
디 자 인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기획사업국	2200-555	〈F A 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